

함평군, (주)자인그린바이오·세화이엔지 투자협약체결

115억원 규모...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역인재 채용·관내 생선품 우선 구매 등 적극 나서

함평군이 (주)자인그린바이오(대표 최규동), 세화이엔지(대표 서성안)와 11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함평군은 "전남도와 함께 (주)자인그린바이오, 세화이엔지 등 2개 기업과 11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군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

수를 비롯한 (주)자인그린바이오 최규동 대표, 세화이엔지 서성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철제가공 생산업체인 세화이엔지는 빛그린산단 부지(6,735㎡)에 50억원을 투입, 철제 비계구조물 등을 제작하는 신규 공장을 신축한다. 동함평산단 입주 기업인 (주)자인그린바이오

는 3,966㎡ 부지에 65억원 규모의 농업용 친환경 경생분해 필름 멀칭지 제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업은 협약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관내 생선품 우선 구매 등에 적극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며 "군에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기자

목포시, 전국체전 대비 숙박업 종합대책 마련

업소 위생, 준수사항·시설 안전점검

목포시가 오는 10~11월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숙박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점검에 나섰다. 시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숙박업소 현황조사 및 장애인 편의시설 파악 ▲숙박업소 시설 안전 점검 및 위생·준수사항 점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교육·간담회, 가두캠페인 전개 ▲종합상황실 운영 및 숙박업소 지원사업 등이다. 먼저,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숙박업 현황

조사 및 장애인 편의시설 파악을 마쳤으며, 올해 1월부터는 상반기 숙박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준수사항 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지난 21일부터는 숙박업 목포시지부와 모니터링 감시원과 함께 숙박업 요금을 조사 중으로 3월부터는 목포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숙박요금을 게시할 예정이다. 시는 3월부터 목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업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숙박업 관련 단체들과 협업해 손님맞이 친절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신안군,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본격 조성

인공어초 투하 통한 서식기반 조성, 바다 낚시 거점지역으로 발돋움

신안군이 비금 노대도 인근해역(400ha)에 수산생물들의 산란과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어초 245개를 투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하되는 인공어초(어패류용 172개, 해조류용 73개)는 2022년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개년에 걸쳐 50억원(10억/년)이 투입되는 쥐노래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어초다. 신안군은 이번 인공어초 투하를 시작으로,

수산종자 방류, 페어구(어망) 수거, 어장환경 개선 등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또한, 조성지구를 관리수면 지정과 자율관리공동체 및 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자율적 관리이용 규제는 물론 불법어업, 외지 선박 차단 등 자체 감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면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초 추가 선정된 하의 옥도, 안좌 사치해역을 대상으로 한 조피블락 산란 서식

장 조성(5년간 40억원 투입)도 오는 10월부터 추진됨에 따라, 이번 어초 투하 해역과는 불과 6km밖에 떨어지지 않아 시너지 효과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인공어초 투하해역은 "다이아몬드 제도"라 불리는 곳으로, 향후 낚시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풍요롭고 잘사는 어촌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지금까지 전북, 해삼, 감성돔 등 총 44종, 37,389천미의 수산종자 방류와 41,058개의 어초를 투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영광군,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실시

주요 거리에서 캠페인 전개...미세먼지 저감 실천 참여 유도

영광군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따라 지난 24일 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터미널 구간까지의 거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참여 홍보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안 하기, 농촌 불법 소각 금지, 폐기물 배출 줄이기, 에너지 절약,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등 더욱 강화된 친환경 생활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서울·인천·경기 지역 및 6대 특별·광역시에서 운행할



경우 카메라 단속을 통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요령 및 배출저감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보건소,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와 업무협약

영암군보건소(소장 최문형)와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동순)가 지난 23일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국립공원 자연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키야주민 대상 국립공원 자연치유 프로그램 운영 △영암함바퀴 걷기 마일리지 사업 연계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의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월출산의 우수한 역사·문화자원 활용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합동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진행

무안군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23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을 2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청소년수련관은 코로나 19로 지친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학습형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관내·외 체험장을 이용해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하고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지역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내 체험장에서는 참기름 만들기, 모싯떡 만들기, 딸기 수확체험 등 8종의 프로그램, 관외 체험장에서는 안전체험, 놀이동산, 생태환경체험, 에코어드벤처 등 9종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 22일에 빛고를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프로그램으로 화재 예방과 산악 안전 체험과 패밀리랜드에서 놀이동산 체험을 31명의 지역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운영했으며, 3월부터는 매달 세 번째 토요일 5차례에 걸쳐 142명의 청소년들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